북항 힐링 걷기, '팔관회' 막 오른다

9월 12일, 북항친수공원 일원서
스마트폰 NFC 완주 인증 도입
'어울림 한마당' 등 치유 공연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2026팔관회봉행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팔관회 명상 걷기대회'가 9월 12일 오후 6시 부산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팔관회 명상 걷기대회 모습.

신라 시대부터 천년을 이어온 불교 전통문화 축제 '팔관회'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명상 걷기대회로 올해 행사의 첫출발을 알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주최하고 2026팔관회봉행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팔관회 명상 걷기대회'가 9월 12일 오후 6시 부산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팔재계(八齋戒)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화합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 편의와 재미를 위해 처음으로 스마트폰 'NFC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참가자들은 걷기 코스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완주를 인증할 수 있다. 기기 사용이 낯선 어르신 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물 카드를 함께 발급한다.

행사 당일 참가자 현장 접수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는 명상지도사 최인혜, 불자 가수 엄재원,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로투라가 식전 무대를 꾸민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참가자 전원이 다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진행된다. 이후 스님들을 선두로 북항친수공원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걷기대회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걷기대회 이후 오후 8시 30분부터 축제의 열기를 더할 '어울림 한마당'도 펼쳐진다. 인기 가수 전유진과 진욱, 금윤아가 무대에 올라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사한다. 또 LG 김치냉장고, LG 스탠바이미 TV, 다이슨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풍성한 경품 추첨이 마련돼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전 참가 신청은 홍보물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부산불교연합회(051-868-5455)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 부스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 참가자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한편 2026 팔관회 본 행사는 이번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선재동자 수계법회, 호국영령위령재, 팔관재계 수계법회 등으로 이어지며 국태민안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할 예정이다.

홍법사·주한미해군, '문화 교류' MOU

실질적 휴식 제공 공식 협약
'제5회 영어캠프' 동행 의미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8월 22일 주한미해군사령부(CNFK)와 우호 증진 및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양 기관이 오랜 기간 다져온 교류와 나눔이 공식적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35명의 학생들과 함께한 '제5회 미 해군과 함께하는 영어캠프'도 개최되며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홍법사는 매년 6월 현충일을 맞아 거행하는 '허공마지 호국법회(홍법바라밀재)'에 미 해군 장병과 군종 목사들을 초청해 왔다. 특히 기독교 목회자인 미 해군 군종 목사가 한국 사찰에 모여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기도 끝에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등 종교의 벽을 허문 추모와 화합의 모습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에게까지 감동을 전했다. 호국 영령을 기리는 한마음으로 시작된 이들의 교류가 굳건한 신뢰로 이어지며 이번 협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협약을 통해 홍법사는 장병들을 위한 '실질적인 치유'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홍법사는 미 해군 장병과 가족들에게 사찰 투어, 웰니스 및 명상 세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심산 스님은 "참된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정예 장병들이 사찰을 찾아 깊이 있는 상담과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약은 종교적 포교의 차원이 아닌,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끈끈하게 연결하고 편안한 쉴 곳을 내어주는 순수한 문화 힐링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식 당일에는 '제5회 미 해군과 함께하는 영어캠프'가 함께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28명의 미 해군 장병과 전국에서 신청한 35명의 초·중학생들이 참가했다. 특히 미 해군의 대민 사업을 담당하는 군종 목사들이 직접 인솔자이자 교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과 장병들은 소그룹으로 팀을 이뤄 영어 단어 카드 학습, 미션 챌린지, 오징어게임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함께하며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마음선원 부산, 백중 맞아 보양식 나눔

영도구 어르신 1670명에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8월 24일 영도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영도구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1670명을 위한 보양식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이 불교 5대 명절인 백중(우란분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보양식을 대접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8월 24일 영도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영도구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1670명을 위한 보양식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과 김철훈 영도구청장, 신도회 임원진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부처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된 백중의 참뜻을 널리 회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오랜 기간 복지관에 전해오던 백중 떡 대신 보양식으로 후원 품목을 변경했다.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실질적인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는 복지관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보양식은 와치종합사회복지관(780팩)과 영도구노인복지관(900팩) 소속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의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받들어 공양하겠다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들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됐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백중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공양을 올린다는 정성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나와 이웃이 결코 둘이 아니기에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한마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나눔 행보를 펼치고 있다. 매년 봄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폐교를 앞둔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마지막 수학여행용 캐리어를 선물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장삼 공양으로 백중 의미 되새기다

창원 정법사, 8월 20일
백중 6재 맞아 천도재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스님들에게 장삼 공양을 올리며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다.

8월 20일 설법전에서 열린 '백중 6재 대중 초청 장삼 공양 및 수자령·태중영가 천도재'는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되새기는 한편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수자령과 태중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정법사 사부대중은 통도사 전계사 스님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차와 공양물을 올리고 수행자의 위의를 상징하는 장삼을 공양하며 승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광우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부모와 조상의 깊은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 있는 부모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선망부모와 조상에게는 극락왕생의 공덕이 전해지기를 기원했다. 또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수자령과 태중영가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든 고통을 여의고 좋은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했다.

동참 대중은 〈부모은중경〉을 독송하며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베푼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돌아보며 부모에 대한 감사와 효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다.

통도사 전계사 스님들은 법문을 통해 부모와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고 이를 회향하는 불교의 효 사상을 강조했다.

이어진 수자령·태중영가 천도재에서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생명들을 위로하고 영가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기를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음으로 하나된 천진불합창단

8월 20~21일, '여름 음악캠프'
수계식 · 발표회 등 '화합의 장'



제주에서 전국 천진불들의 맑은 찬불가 화음이 울려 퍼졌다. 사단법인 동련과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가 제주도 일원에서 음악캠프를 열고, 어린이 불자들에게 수계식과 음악을 통한 화합의 장을 선사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 약천사와 부영청소년수련원 일대에서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여름 음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약천사, 정법사, 관음사, 서암정사, 보리왓 등에서 활동하는 천진불 어린이 114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동참하여 성황을 이뤘다.

캠프 첫날에는 제주 약천사에서 어린이 수계식이 봉행됐다. 전계대화상 선응 지현 스님(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총재), 갈마아사리 영산 스님(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회장), 교수아사리 능후 스님(사단법인 동련 상임이사)이 증명 법사로 나선 가운데, 114명의 어린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후 부영청소년수련원으로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은 사찰별 발표회와 연합곡으로 각 합창단의 실력을 뽐냈다. 발표회 후에는 다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놀이가 펼쳐져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캠프 둘째 날인 21일에는 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회향식을 가진 뒤 색달생수천 물놀이장으로 이동해 사찰별 물놀이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음악캠프에 동참해 부처님의 품 안에서 함께 노래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방생 공덕으로 국민 이고득락"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
8월 22일, 낙동강서 방생법회



병오년 백중을 앞두고 뭇생명을 살리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뜻깊은 방생법회가 부산 낙동강변에서 열렸다.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는 8월 22일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용수 스님과 함께하는 병오년 백중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생명 존중과 불상생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은 용수 스님의 집전으로 향을 사르고 〈금강경〉을 봉독하며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미꾸라지를 낙동강에 방생하며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발원했다.

용수 스님은 법문에서 "직접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동참한 분들에게도 공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인연 공덕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이고득락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 김근하 부단장은 전국에서 불자들이 함께한 의미를 강조하며 방생 공덕이 각 가정의 평안과 나라의 안녕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했다.

사부대중은 방생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사회의 평안과 모든 중생의 이고득락을 발원하며 법회를 회향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미소원 청년회가 선물한 '신나는 여름 한 페이지'

8월 22일, 부산 삼정타워
방학 맞이 어린이 문화체험



사단법인 미소원의 청년 불자 모임인 미소원 청년회가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 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는 8월 22일 부산 삼정타워에 위치한 실내 놀이 시설에서 아동 대상 문화체험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인 '신나는 여름 한 페이지'를 개최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17명과 미소원 청년회원이 참여했다. 청년회는 당초 야외 활동을 계획했으나 폭염에 따른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실내 놀이 시설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날 아동들과 청년회원은 한 조를 이뤄 미로 탐험과 미션 수행 등 활동적인 놀이를 함께했다. 청년회원들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든든한 멘토이자 친근한 형, 누나로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눴다.

아울러 체험 활동을 마친 후에는 불교계 봉사단체인 미소원을 소개하고 단체의 핵심 가치인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아이들에게 업사이클링 학용품을 선물하며 일상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다겸 미소원 청년회장은 "아이들이 놀다가 지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빨리 지나가 아쉬워할 정도로 즐거워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쌓고 더 큰 꿈을 꾸며 밝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7년 11월 공식 출범한 미소원 청년회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불자 모임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